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 이사 50,5-9a

제2독서 : 야고 2,14-18

복음 : 마르 8,27-35

순정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르 8,34b)

강론

십자가도 많다

월명동 천주교회/김준호 신부

참으로 십자가도 많다.

여기저기 십자가 천지다. 더구나 어두운 밤에 작은 언덕이라도 올라 보면,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가 됐든 온통 붉은빛 네온으로 십자가가 빛난다. 그뿐인가? 우리가 가진 십자가도 많다. 목에 걸은 것하며, 손가락에 낀 것하며, 이방 저방 벽벽마다 걸려 있는 것하며, 책상 위, 탁상 위 또 어지간한 차의 운전대 옆에도, 뒷 창문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붙혀져 있다. 아니 우리들 하루에도 수백씩은 이마, 가슴, 양 어깨에 십자가를 그어댄다.

또 있다. 자기에게 조금 힘든 일이 닥치면 그건 또 다 자기 십자가란다. 재물이 좀 없어도 십자가, 살기가 좀 고달퍼도 십자가, 몸이 좀 아파도 십자가, 작은 고민, 걱정거리도 십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도 천지다. 다 자기가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란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요, 그리스도교 술어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낱말이 아닌가. 실상은 십자가가 아닌 것들에 십자가를 붙이는 일이 너무 많다. 자기가 당하는 재난을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 재난은 비극이 될지언정 십자가는 아니다. 자기가 당하는 슬픔과 손실을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인생의 짐은 될지언정 십자가는 아니다. 다 자기 십자가, 다 자기가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라고들 말할 뿐이지, 남의 일 때문에 짊어졌다는 십자가는 드물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십자가로 대신 짊어졌다는 말은 그리 흔치 않다.

예수도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 고민을 십자가로 지신 것이 아니다, 자기 궁핍을 십자가로 지신 것이 아니다, 자기 걱정을 십자가로 지신 것도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많은 생명을 구속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택하신 것이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우리가 짊어져야 할 참다운 십자가는 무엇이겠는가?

소리

카인의 후예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르완다를 기억하며 “피난민이나 추방당한 이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이는 한국 천주교 주교 전례위원회가 교황청의 뜻에 따라 정한 것이다.

르완다에는 국민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후투족과 14% 가량 되는 투치족의 종족분쟁으로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들의 대립은 상대 종족의 씨를 말리기 위한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를 따라 우간다로 밀려온 4만여구의 시체는 손발이 묶인 어린이와 부녀자들이었다니 끔찍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농장에 바나나보다 시체가 더 많다”고 말하겠는가. 이러니 후투족의 난민들은 투치족의 보복적 살상보다는 난민촌에서의 죽음을 선택한다고 한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종족간의 갈등은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4월 중순만 해도 그렇다. 이번에는 후투족의 극렬분자들이 성당으로 몸을 피해 있던 투치족을 습격하여 1천여명을 살해하고 장 밥티스트 주교와 사제들을 생매장했다. 이처럼 르완다에서는 주교 3명과 1백여 사제와 수도자가 학살당하기도 했다.

역사 이래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하며, 내 민족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좋은 표현으로 생존경쟁이고, 막말로 하자면 전쟁이랄 수 있다. 우리는 정녕 카인의 후예인가? 문득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가슴을 찡누른다. [用]

순정이 산책



주교회의 가정 사목위원회 담화문(요약)

카이로 세계 인구와 개발 회의에 즈음하여
우리는 생명과 사랑, 그리고 가정을 지지한다

'94년 9월5~13일, 유엔이 카이로에서 개최하는 '세계 인구와 개발 회의'는 2천년대의 인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구문제와 개발에 관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카이로 회의는 기대와 달리 최종 문서의 초안에서 몇몇 사안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부재의 커다란 충격과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94년 카이로 회의는 인구와 개발에 관한 회의이면서 그 최종 문서 초안은 인구와 개발 사이의 심층관계를 오히려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즉 인구와 개발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회의는 개발이 인구 억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상호 연대적이며 총체적인 개발을 지지한다. 오늘날 개발과 관련하여 인구문제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인구정책은 개발정책의 일부이어야 한다. 즉, 개발은 총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이어서만은 안된다. 따라서 인구정책이 인간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윤리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가정과 여성문제, 생명의 전달과 아동, 노인문제, 청소년 성문제 등을 다룬 뉴욕 준비 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가장 근본적인 결혼문제를 논의대상에서 제쳐 놓았다. 이 문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이다. 또한 최종 문서 초안은 '가정의 다양한 형태'라는 표현을 통하여 오늘날 가정의 문화적, 법률적 다양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는 가정의 본질을 왜곡하여 일시적 동거나 동성 연애도 가정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가정을 지지한다. 가정은 남녀의 자유로운 혼인 동의를 통하여 기록되는 자연 제도로서, 모든 인정법에 우선하는 자연법에 토대를 둔 '사회의 기초 세포'이다. 가정은 국가나 기타 다른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다양한 형태'라는 표현이 혼외 자유 동거, 동성 연애 등과 같이 가정의 가치와 윤리적 측면이 왜곡되지 않도록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인공 임신 중절은 결코 가족 계획의 한 방법일 수 없다. 최종 문서 초안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공 임신 중절을 여성의 권리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84년 멕시코 세계 인구 회의의 결의 사항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족 계획을 목적으로 한 인공 임신 중절은 장려될 수



없다"는 내용을 잠정적으로만 문서에 삽입해 놓았다. 또한 카이로 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출산 보건' 혹은 '성 보건'과 그에 따르는 '출산 권리'는 매우 새롭고 논의의 여지가 많은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피임, 인공 임신 중절을 모든 연령층,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개방하려는 의도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을 지지한다. '84년 멕시코 세계 인구 회의에서 결의한 위의 사항을 지지하며 이는 카이로 문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4. 최종 문서 초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까지 출산과 피임을 은밀히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문서 초안에 산재해 있는 윤리성의 결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 배제 등은 일부 선진국의 시각을 반영한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다.

우리는 사랑을 지지한다.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방종이 아니라 책임, 희생과 절제를 요구한다. 성은 성스러운 것이며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단순히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가정이 가정답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세계 가정의 해'에 즈음하여 이번 인구와 개발 회의가 오히려 근본적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인공 임신 중절을 조장하고 가정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논의됨을 용납할 수 없다. 자연법에 기초한 가정제도는 마땅히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증진, 보호되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윤리부재의 터전에서 존속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간이 개발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94. 8. 1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하이패션
세미라인 전주점
이 현 정(가타리나)
풍년제과 중앙동 본점→전주백화점
☎ (0652) 83-423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신속 배달
광진포인트
신축, 실내장식, 집수리 전문
김태정
원점순(젼마)
전주시 서서학동 152-3번지
☎ 88-7672, 88-1285

천호장 의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규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잡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9. 가정에서의 성교육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의 부도덕화, 성의 상품화, 성과 사랑의 분리 등 성문제의 병리현상으로 청소년들의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에 대해 비밀스럽게 전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조금씩 알아 온 기성 세대에게는 왜 그런지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성문제를 비밀스럽고 은근하게 알아가고 해결하도록 놔 두지 않는다. 눈만 뜨면 어디에서나 저속한 잡지의 그림을 쉽게 되고, 텔레비전에서는 대담한 러브신과 선정적인 율동,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도덕관을 강조한 채 성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려한다면 이미 성적으로 충분히 자극되고 호기심에 가득 찬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속담에,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 말에는 술 먹는 일은 허용하되 좋은 태도를 배우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은 먼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성에 관한 지식을 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모범적인 부부생활을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부모를 관찰하고 또 이를 모방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모습에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깨졌지만, 그 개념의 진수는 보존되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 인간 존중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모든 부모들은 명심해야 하겠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요심이 (1098) 김병오



직원 채용

1. 과학실조교(전산업무 겸)
 2. 지적: 교졸 이상(여) 3. 서류: 이력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해당업무 자격증 사본, 호적등본 각 1부 4. 제출처: 성심여자고등학교 서무과(84-3244)
 5. 제출마감: '94. 9. 14 18: 00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원평 성당에서 직접 배배

- 가격: 大 20,000 中 18,000 小 15,000
- 구입문의: (0658)43-0880~143-4236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비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 비 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교구 소식

1. 사제 인사 발령: 서석구 신부(안식년→신봉 주임), 김태운 신부(사목국장 겸 옥봉 주임→옥봉 주임), 전중복 신부(임실 주임→교구청 대기), 박찬길 신부(교육국장→사목국장), 나춘성 신부(신봉 주임→해외연수), 정천봉 신부(군중 제대→교창 주임), 박기준 신부(교창 주임→교육국장), 박종탁 신부(성심여중·고교 종교감→임실 주임)
2. 추계 사제 총회: 9월13일~15일 나바위 피정의 집
3. 재무 평의회: 9월16일(금) 오전10시 교구청
4. 천호 피정 안내: 9월13일(화) 주제-현대의 순교, 강사-박창신 신부, 문의 73-6600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9월18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6. 소리개재 교회모지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20일(화) 오전11시-합동연도, 오전11시30분-합동 위령미사
7.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월례회: 9월18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8. 성모의 기사회 피정: 10월1일(토) 오전9시30분 효자동 성당, 준비물-미사도구, 점심
9. 이명재 신부 주소: 경기도 송탄시 이충동 현대APT 106동 401호 ☎ (0333) 665-9484
10. 르완다 난민 돕기: 사회복지회로 문의바랍니다. ☎ (0652) 84-5290
 온라인-국민은행 506-21-0650-743(오성기) 우체국 402206-0040459-12(오성기)

나리 아동미술학원

유치부·국교부
 송미란(도미나)
 ☎ (0673)43-1886

청림속셈학원

국교전과목, 중·고 영, 수, 국 성심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강주희(헬레나)
 서원국교 후문 앞
 학원 ☎ 223-1713
 야간 ☎ 244-1623

이명복 박사의
 사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재갑(다두)
 정원미(클라우드미아)
 중앙동 성원오피스텔 508호
 ☎ (0652)231-6427~9
 황명건강희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4주일
- ◎ 조촌동 성당 건축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1. 추계 사제 총회: 13~15일,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 13일-새벽미사, 14일-말씀의 전례
-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19일까지 사무실, 선령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본당의 날 행사: 10월 9일, 성지순례, 장소-미리내성지, 회비-10,000원, 도시락 각자 지참, 각반 반회장님께 신청하세요.
- 4. 반미사 안내: 중노6반-16일, 후3시
- 5. 전입을 환영합니다. 정창길(안티모) 가정, 인후10반, ☎ 243-6103
- 6. 본당 전화번호부 광고 접수: 사무실
- 7. 부녀회에서 멀치액젓을 판매합니다: 소-9,000원, 대-16,000원
- 8. 모임: ① 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 부녀회(13일, 전10시30) ③ 계속형체회(17일, 후2시) ④ 대건회(18일, 장엄미사 후)
- 9. 금주 청소: 중노16, 17반 차주 청소: 중노18, 20반
- 지난주 봉헌금: 1,011,810원 □ 교무금: 1,127,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수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

- ◎ 연중 제24주일(9월은 순교자 성월)
- 1. 청소년 선후배 체육대회: 9월11일(오늘) 오전9시~오후5시 장소-전주 교육대학 교정, 대상-서학동 성당의 모든 청년 종교동부 학생
- 2. 프란치스코3회: 9월11일(오늘) 오후2시
- 3. 성심회: 9월13일(화) 오전10시30분
- 4. 추계 사제 총회: 9월13일(화)~9월15일(목) ※ 신부님 총회 기간은 미사 없고 말씀의 전례로 함.
- 5. 한가위 대축일(추석) 미사시간: 9월20일(화) 추석날 새벽6:00 오전10시
-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사무실에 접수바람. ※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 남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전례: 해설-전병구(비오) 독서-강석주(베드로)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동재(베네딕도) 독서-송병윤(미카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39,750원 □ 교무금: 1,420,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훈
사목회장 황길평

- 1. 군산 조촌동 성당 신축을 위한 2차헌금: 오늘
- 2. 치명자산 성당에서 미사안내: 매주 목요일 오전10시30분, 9월 순교자 성월동안 있으며, 본당 저녁미사도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 추계 사제총회: 13일~15일(13, 14일 미사 없음)
- 4. 9월 반모임: 일정표에 의해 실시하시고 추석 주간은 수녀님과 상의 하십시오.
-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봉헌: 18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 6. 추석미사 안내: 새벽6시, 오전10시30분
- 7.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8.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9.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10. 부녀회: 15일(목) 오전10시
- 11.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12. 르완다 난민돕기 2차 헌금: 18일, 20일에 있습니다.
- 13. 원장 수녀님 휴가: 12~17일
- 14. 울뜨레아에서 영광굴비 판매: 최상품 주문 판매합니다.
- 15. 성당 청소: 17일 황금궁전Pr, 성모성년Pr.
- 16. 금주 전례: 해설-황만금,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문금철 가족
- 17.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김영길 부부 봉헌-김순희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37,050원 □ 교무금: 1,450,900원
- 감사헌금: 3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원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

- ◎ 연중 제24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 1. 금주: ① 자모회-전 10시 ② 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 사목회-후 8시
- 2. 사라회: 13일(화) 오전 11시
- 3. 추계 사제 총회: 13일~15일-기간 동안 말씀의 전례 (13일 아침과 15일 저녁은 미사)
- 4. 돈보스코회: 14일(수) 오후7시30분
- 5. 구역반장 회의: 15일(목) 오전11시
-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접수: 18일까지
- 7. 차주: ① 바나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 청년회-후 8시
- 8. "우리 농촌 살리기" 농산물 직매장 개장: 오전 9시~오후 7시
- 9. "전동 성당과 순교자들" 출판비 찬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10,410원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20일(화) 오전10시, 접수-사무실에 18일(일)까지
- 2. 모임: ① 꾸리아, 안나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 장년회-17일(토) 저녁
- 3. 평일 미사시간 변경: 저녁 7시30분, 월-오전 5시30분
- 4. 환영: 유매업 매대사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입: 윤 마리 도미너가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 5. 탈상미사: 정 벨라벳타(공기) 15일(목) 저녁5시
- 6. 지속적인 성체조배: 신청바람(1주간 1번 1시간)
- 7. 금주 청소: 모든 성인의 모후Pr
- 8. 차주 청소: 성실하신 동정녀Pr
- 9. 금주 전례: 해설-권원규, 독서①양주태 ②오귀남 봉헌-이기용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정광섭 ②이순자 봉헌-안복성씨 부부
- ※ 용어 해설
성인과 복자: 천주교에는 생전의 덕성과 행적이 매우 뛰어나서 모든 신자의 귀감으로 선양하고 떠받치는 인물이 있다. 그들은 성인(성녀)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절차에 있어서, 덕성과 행적이 뛰어났음을 교회가 인정했으나 아직 성인으로 선언하지 않은 인물에게는 복자라는 존칭을 드린다. 우리 나라에는 103명의 성인이 있다.
- 지난주 봉헌금: 330,400원 □ 교무금: 180,00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사

-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접수: 18일까지, 선령들을 위해 정성을 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 2. 본당의 날 행사: L.M 야외행사를 겸한 전신자 성지순례 25회비-오천원, 천호→여산→나바위, 차량준비 관계로 반회정 확실한 인원을 보고바랍니다.
- 3. 예비신자 교리 안내: 매주 목요일-저녁8시, 주일-전12시
- 4. 성가대 성지순례: 13일 전10시 치명자산
- 5. 성가대 반주자 모임: 17일 오전10시, 정순희 대환영
- 6. 가정방문: 16일 강남-1반 전9시, 강남-2반 후3시
- 7. 회의: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 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빈첸시오-14일 어머니미사 후 평화기사회-15일 저녁8시 성소 후원의 날-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엠마누엘-다음주 공식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8. 주일미사 안내자: 다음주일-강상근(미카엘), 유덕진(비오) 최세희(다두), 이경남(가타리나), 정순희(마리아)
- 9. 어린이양 진치: 10월9일 성가 경연대회 준비에 협조바람.
- 10. 감사: 인천112차 M·E 본당 방문 감사헌금 307,000원 봉헌
- 지난주 봉헌금: 1,172,610원 □ 교무금: 1,724,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오후8시 전동교육관, 요한복음 강의